

# 이란·헤즈볼라 대대적 보복...호르무즈 긴장 급고조

### 이스라엘 합동 공격...이란 "50개 이상 표적 타격"

### 테헤란 은행 피격 위험...두바이 금융기업 폐쇄·대피령

미국과 이스라엘의 공습으로 발발한 이란 전쟁이 13일째를 맞은 12일(현지시간) 새벽에도 양측의 '맞불' 공방이 이어졌다.

미국 CNN방송과 AFP, 로이터 등 외신에 따르면 이날 이란 이슬람혁명수비대(IRGC)는 레바논의 친이란 무장정파 헤즈볼라와 함께 5시간 동안 합동 작전을 펼쳐 이스라엘 전역의 표적 50개 이상을 타격했다고 발표했다.

IRGC는 이번 작전에서 다양한 탄도 미사일을 발사했으며, 헤즈볼라도 대규모 공격용 드론과 로켓을 동원했다고 설명했다.

성명에서 IRGC는 "이번 공습이 점령지 전역의 목표물을 타격했으며 북부 하이파, 중부 텔아비브, 남부 비르세바에 이르는 이스라엘 군사 기지에 고통스러운 타격을 입혔다"고 주장했다.

헤즈볼라도 별도의 성명에서 텔아비브 외곽에 있는 이스라엘 군 정보기지에 첨단 미사일을 발사했다고 밝혔다.

이란과 헤즈볼라의 공격 후 이스라엘도 베이루트 남부의 정보 본부와 지휘 센터를 포함, 레바논 전역의 헤즈볼라 기반 시설을 겨냥해 광범위한 보복성 공습에 나섰다.

이스라엘군은 텔레그램을 통해 이같이 발표하면서 "이란에서 이스라엘 영토를 향해 발사한 미사일을 포착했다"며 "위협을 요격하기 위해 방어 시스템을 작동 중"이라고 전했다.

이날 레바논 베이루트 해안가에 가해진 이스라엘의 공습으로 최소 7명이 숨지고 21명이 다쳤다고 레바논 보건 당국은 밝혔다.

또 이란 주요 국영 은행인 세파은행과 관련된 테헤란의 한 건물에 밤사이 공격받았다고 이란

반관영 매체인 투스넷은 보도했다.

이후 이란 당국은 중동 전역에 있는 미국 및 이스라엘 연계 은행도 공격대상이라고 위협했다.

그 여파로 씨티그룹, 스탠다드차타드(SC), 골드만삭스, 딜로이트, PwC 등 금융 관련 기업들이 아랍에미리트(UAE) 두바이 소재 사무실을 폐쇄하거나 직원들에게 대피령을 내렸다. H SBC는 카타르 내 모든 지점을 일시 폐쇄했다.

호르무즈 해협과 인근 해역에도 계속 긴장이 고조되고 있다.

IRGC는 이날 호르무즈 해협 일대에서 혁명수비대 해군의 경고를 무시한 채 운항했다며 이스라엘, 태국, 일본 선적 등 외국 선박을 공격했다고 발표했다.

또 이라크 항만 당국은 이날 이라크 바스라 항구에서 발생한 미확인 공격으로 유조선 2척에서 화재가 발생했다면서 승무원 25명을 구조했다고 밝혔다. 또 이번 공격으로 외국인 승조원 1명이 사망했다고도 전했다.

당국은 공격 주체를 정확히 밝히지 않았으나, 로이터통신은 당국 초기 조사 결과를 인용해 이란의 폭발물을 탑재한 보트가 유조선들을 공격했다고 보도했다.

쿠웨이트와 인접한 바스라 항구는 페르시아만의 가장 깊숙한 곳에 있으며, 호르무즈 해협과는 직선거리로 800km가량 떨어져 있다.

이란군은 그간 주로 호르무즈 해협을 지나는 외국 상선을 집중적으로 공격했는데, 페르시아만 전역을 겨냥한 사실상의 '해상 테러'로 변화를 꾀하며 미국과 이스라엘을 압박하는 양상이다. 전쟁이 장기화할 수 있다는 우려가 불거지는

가운데 조기 종전 가능성을 두고 미국과 이스라엘은 미묘한 온도 차를 드러내고 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전쟁이 곧 끝난다고 거듭 언급하며 일방적으로 승리를 선언하는 방식의 출구전략을 짜는 듯한 모습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11일 온라인 매체 약시오스 인터뷰에서도 "전쟁이 곧 끝날 것"이라며 "사실상 공격할 표적이 거의 남아있지 않다"고 설명했다.

그는 같은 날 캔터키주 히브런에서 한 연설에서는 이란 전쟁에 대해 "우리가 이겼다"면서도 임무를 마칠 때까지 군사작전을 계속하겠다고 밝혔다.

반면에 이스라엘의 베냐민 네타냐후 총리는 "더 많은 놀랄 일이 있을 것"이라며 전쟁을 계속하겠다는 뜻을 강조했다.

이스라엘 카츠 이스라엘 국방부 장관은 11일 이스라엘군 참모총장 등이 참석한 상황 점검 회의에서 "이스라엘과 미국의 작전은 모든 목표를 완수하고 승리를 거둘 때까지 필요한 만큼 시간제한 없이 계속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란의 군사 능력 약화에 더 집중하는 미국과 달리 이스라엘은 이란의 성직자 정권을 영구적으로 약화시킬 원한다는 분석도 나온다.

한편 미 국방부는 이란을 상대로 한 전쟁에 첫 9개월간 비용이 113억달러(약 16조7천억원)가 넘는다는 추정치를 의회에 제시했다.

전쟁 첫 10개월간 미군이 쓴 탄약만 56억달러어치라고 미 일간 뉴욕타임스(NYT)와 워싱턴포스트(WP) 등이 국방부의 의회 브리핑 내용을 인용해 전했다.

로이터통신은 백악관이 곧 의회에 최소 500억 달러 수준의 전쟁 비용 자금을 추가로 요청할 것이라는 몇몇 의회 보좌관들의 예상도 전했다. /연합뉴스



10일(현지시간) 하와이 엘프 국립공원에 있는 킬라우에아 화산에서 용암이 분출되고 있다. /AP=연합뉴스

## 하와이 화산 분화 "용암, 엠파이어 스테이트만큼 치솟아"

미국 하와이에서 화산이 분화하면서 용암이 뉴욕 랜드마크인 엠파이어 스테이트 빌딩 높이까지 치솟는 진풍경이 펼쳐졌다.

11일(현지시간) 미국 NBC방송에 따르면 지질조사국(USGS)은 전날 하와이주(州) 하와이섬(빅아일랜드) 동단 킬라우에아 화산에서 43번째 분화가 이뤄졌다고 발표했다.

분화는 10일 오전 9시17분에 시작돼 오후 6시21분까지 9시간 넘게 이어졌다. 용암이 최고 1천300피트(약 396m)까지 치솟았는데 이는 엠파이어 스테이트 빌딩 최고층에 육박하는 높이이다.

총 2개의 분화구에서 최대 91km 높이의 화산

재 기둥이 뿔어져 나왔고, 인근 전망대에는 18cm 높이의 화산재가 쌓였다.

지질조사국 하와이 화산 관측소는 항공·화산 정보 단계를 적색으로 상향했으며, 하와이 카운티 당국도 인근 11번 고속도로를 폐쇄했다.

지질조사국 측은 "축구공 크기 또는 이보다 작은 낙하물이 하와이 화산 국립 공원에서 관측되며 위험한 노면 상태를 조성하고 있다"고 경고했다.

킬라우에아 화산은 하와이에서 두 번째로 큰 화산이자 세계에서 가장 활발한 활화산이다.

2024년 12월23일 첫 분화가 시작된 이후로 간헐적으로 용암 분출이 이어지고 있다. /연합뉴스

## "장관 사진 못 나왔다고"...펜타곤, 브리핑에 사진기자들 '차단'

### 헤그세스 첫날 이후 브리핑 출입금지

미국 국방부(전쟁부)가 언론사 카메라에 찍힌 피트 헤그세스 장관의 사진이 마음에 안 든다는 이유로 모든 사진기자의 브리핑 참석을 막아 구실에 올랐다.

언론의 자유를 놓고 기자들과 충돌해온 피트 헤그세스 장관의 국방부가 이번엔 이란 전쟁이 한창인 와중에 사진 속 장관 외모를 근거로 전황 브리핑 취재를 제한한 셈이어서 논란이 예상된다.

미 일간 워싱턴포스트(WP)는 11일(현지시간) 국방부가 언론사들의 헤그세스 장관 브리

핑 사진이 "실물보다 덜 매력적으로 나왔다"고 판단해 사진기자들의 이후 브리핑 참석을 금지했다고 두 명의 소식통을 인용해 보도했다.

보복을 우려해 의명으로 취재에 응한 소식통들에 따르면 국방부 참모진은 지난달 28일 미국·이스라엘의 이란 공습 개시 후 처음 열렸던 3월2일 헤그세스 장관과 맨 케인 합참의장의 브리핑 사진을 문제 삼은 것으로 전해졌다.

AP와 로이터 통신, 게티이미지 등 다수 매체가 당시 브리핑에 사진기자들을 보냈는데, 이후 발행된 헤그세스 장관의 사진에 대해 장관 참모들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의견을 공유했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국방부 참모진은 이달 4일과 10일, 두차례 후속 브리핑에서 언론사 사진기자들의 출입을 전면 불허했다고 이들 소식통이 전했다.

김슬리 월슨 국방부 대변인은 "펜타곤 브리핑 공간을 효율적으로 이용하기 위해 비인가 언론사들은 풀기자를 제외하면 매체당 한명씩만 참석을 허용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이런 조치에 대해 미 전국사진기자협회(NPPA) 알렉스 가르시아 회장은 "정부 관리들에 대해 오직 우호적인 사진만 찍어서 배포해야 한다면 자유로운 언론이 제 기능을 할 수 없다"고 비판했다. /연합뉴스

## 日 성인 10명 중 4명 "70대에도 일하겠다"

일본 성인 10명 중 4명은 70대에도 일할 의향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니혼케이자이신분(닛케이)은 "작년 10-12월 18세 이상 성인 1천518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우편 여론조사에서 70세가 돼도 일하겠다고 답한 비율이 42%였다"고 12일 보도했다.

이 조사를 시작한 지난 2018년 이후 70대에도 일하겠다는 비율이 40%를 넘는 것은 처음이라고 닛케이는 전했다. 구체적으로 보면 '70-74세'가 23%, '75세 이상'이 19%였다.

이번 조사는 몇살까지 일할 생각인지를 응답자가 수치를 써넣는 방식으로 이뤄졌다. 전체 응답의 평균값은 68.3세로, 일본 기업의 고용의

무 연령인 65세보다 높았다.

일본은 고령자 고용 확산을 위해 지난 2012년 고령자 고용 안정법을 개정해 기업이 근로자가 희망한다면 65세까지 의무적으로 고용하도록 했다. 이어 지난 2021년에는 근로자의 고용 기회를 70세까지 보장하기 위해 기업이 노력해야 한다는 내용을 법제화했다.

이번 조사에서 연령대로 보면 65-69세까지 일하고 싶다는 사람이 27%로 가장 비율이 높았다.

60대 응답자 중에는 70세가 된 이후에도 일할 생각이라는 비율이 58%에 달했고, 75세 이상 이 돼도 계속 일하겠다는 비율도 20%였다.

/연합뉴스

## 실리를 따진다면 가성비 좋은 피닉스입니다!

1. 믿을 수 있는 100% 국내공정
2. 신속하고 확실한 A/S
3. 합리적인 가격에 고품질 품질



**고블 G-07 프리미엄**  
럭셔리 프리미엄 상급자용



**피닉스 K-07**  
럭셔리 중상급자용



**피닉스 G-01**  
초보 입문자용

FREE 전국 택배 무료 배송!

### 장인의 기술

오래기술과 노하우를 바탕으로 순수 국내제작으로  
정밀함과 기술로 정성을 다해 만든 국내 장인 제품입니다.

## ASTRO

최고의 명품 퍼크골프채  
아스트로

**A9 Nice Shot**  
상급자를 위한 정교한 방향성, 비거리, 타구감 향상



소비자가격 ₩ 1,180,000

헤드	단봉나무 / 고탄성 카본 / 황동
샤프트	최고급 고탄성 카본 100% (68g/55g)
길이	85cm / 83cm (여성)
중량	525g (±10g)

**A100 Nice**  
부드러운 타구감, 방향성, 비거리 최적화 / 골프엘보 완전해결



소비자가격 ₩ 1,380,000

헤드	단봉나무 / 고탄성 카본 / 황동
샤프트	신공법으로 설계 초고탄성 카본
길이	85cm / 83cm (여성)
중량	522g (±10g), 샤프트 50g

**A5**  
최적의 밸런스로 부드러운 스윙과 안정적인 타구감



소비자가격 ₩ 800,000

헤드	단봉나무 / 고탄성 카본 / 황동
샤프트	최고급 고탄성 카본 100% (68g/50g)
길이	85cm / 83cm (여성)
중량	525g (±10g)

영무SP sports

062) 653-4141

광주 남구 대남대로 252 (백운동 644-33)

www.sunparkgolf.com